

2공항 정부 결단 촉구 놓고 의회 두 쪽

결의안 채택 두고 제주자치도의회 두 편으로 갈려 제2공항 정부 결정 촉구 결의안 우여곡절 끝 통과 국민의힘 전원 반대... 본회의장서 양당 갈등 표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반 대립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이하 제2공항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전부 반대했고, 나머지 36명은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앞으로 결정할 제2공항 정책에 대해선 "찬반 양측이 모두 승복할 수 있게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여야 한다"면서 "찬반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가 의회와 협의 없이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비판 의견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원 지사의 역할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회는 제2공항 결의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전달한다. 제2공항 결의안 처리과정에서 의회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이날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이 제2공항 정상 추진 요구를 포함하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 정부가 제2공항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며 결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27일 도의회는 제주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경웅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반대 토론자로 나서 "민

주당의 의견을 의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결의안에 대한 정당 간 협의나 논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 다수당에 의한 독단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다.

김희현 의원은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도 제2공항 찬반 의견이 반반인데 서로 찬반을 외치면 갈등이 봉합 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주장은 결의안에 서명한 모든 의원을 제2공항을 반대한 의원들로 묶으려는 수작이며 정당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알뜰한 전략이다. 정치 하수들이"고 힐난

했다. 같은 당 김태석 의원은 "(2012년 당시) 건의안에는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제주공항 확장도 포함한 것이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후 좌남수 의장이 결의안 발의 과정을 설명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강종룡 의원이 "협의를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표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봄기운 일렁이는 한라수목원 어느새 완연한 봄이다. 산과 들녘에는 초록빛 봄기운이 넘실댄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5일 제주시 한라수목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신록으로 물들어 가는 수목길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상민기자

“에너지 전환 해법 제시·산업생태계 조성” 27일 JDC서 제주에너지포럼 발족 토론회

제주의 에너지 전환 해법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기구가 마련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에너지포럼' 발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력·에너지·선박·농업 등 각 분야 기

관 및 민간단체와 학계 등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제주의 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포럼은 제주 에너지 전환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포럼 발족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제9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주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지역주도의 분산에

너지 활성화 대책' 주제 발표를,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전략으로 제주에서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고 실천을 주도할 '제주에너지포럼'의 출범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공급방식 전환을 성공시켜 국가에너지 전환 모델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로... 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70개 실행과제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 증진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등 4대 목표와 8대 중점과제 등 총 7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2차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간 5316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 17개 과제에 1841억원, 돌봄 및 일·삶 균형 문화 조성 등 16개 과제에 717억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도정 주요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 11개 과제에 34억원,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 및 여성대학 운영 등 10개 과제에 790억원을 투입한다.

강다혜기자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의회 통과

찬성 29명·반대 6명·기권 3명... 25일 임시회 폐회 좌남수 의장 “코로나 극복·새로운 특별자치 필요”

제주 드림타워로 카지노를 확장·이전하는 과정에서 밟아야 할 도의회의견 청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엘티 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에 대해 17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위는 의견서에서 "도민 고용 80%, 청년 고용 80% 유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 항목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 항목 사전 심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여부는 카지노감독위원회

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이 밖에 도의회는 공무원 정원을 140여명 증원하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힘겨루기를 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임시회를 폐회했다.

좌남수 도의회의장은 폐회사에서 새로운 특별자치도 설계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올해 제주도는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제주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제 회생과 도민 생존위기 극복방안이 촘촘히 마련됐는지 의문"이라며 "경제 부양을 위해 공공재정부터 상반기 신속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좌 의장은 7단계 제도개선에 핵심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특별자치도 설계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